



지동원의 드리블 돌파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지동원(10번)이 6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세렘반의 파로이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시리아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2차전 도중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세렘반(말레이시아) | 뉴스피

승점 1점... ‘가난한 독립국’에 핀 희망꽃

(코소보)

사커 토픽

분쟁과 내전 시달렸던 약소국 코소보
러월드컵 예선 데뷔전서 핀란드와 1-1
리우올림픽 여유도 숲에 이어 또 감격

‘유럽 최빈국’ 코소보에게 2016년 5월은 영원히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5월 4일(한국시간) 유럽축구연맹(UEFA)은 총회를 열고 코소보를 55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독립국가로 탄생하기까지 거친 복잡한 과정만큼이나 반대도 많았다. 코소보의 UEFA 가입에 찬성표를 던진 나라는 28개국에 불과했다. 24개국이 반대했고, 2개국은 기권했다. 열흘 뒤 남보가 또 전해졌다. 5월 13일 국제축구연맹(FIFA)은 멕시코시티 총회에서 코소보와 지브롤터를 각각 210·211번째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번에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41개국이 코소보의 FIFA 가입을 승인했다. 반대는 UEFA 가입 때보다 적은 23표였다.

그로부터 4개월이 흘렀다. 코소보는 역사적인 월드컵 예선 데뷔를 치렀다. 결과도 아주 훌륭했다. 6일 핀란드 투르쿠 베리타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핀란드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유럽 최종예선(I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전반 18분 먼저 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15분 페널티킥(PK) 찬스를 발른 베리사(잘츠부르크)가 침착하게 성공시켜 적지에서 값진 승점 1점을 얻었다. 첫 득점과 첫 승점... 코소보는 작지만 위대한 역사의 첫 발걸음을 뒀다.

●**끔찍한 고통 딛고 일어난 코소보 스포츠**
유럽 발칸반도 세르비아의 자치주에 머물다 2008년 2월 독립을 선언한 코소보의 역사는 온갖 아픔으로 점철됐다. 터키의 기나긴 지배가 끝난 1913년 이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 편입됐다. 알바니아를 시작으로 1946년 유고슬라비아연방 자치구가 됐다가 구 유고연방을 거쳐 2003년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 다시 편입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분리된 2006년 세르비아의 영토가 됐고, 지금에 이르렀다.

잘 알려졌다시피 독립은 쉽지 않았다. 분쟁을 피할 수 없었다. 1998년 3월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다. 코소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반군이 지배층 세르비아 경찰을 공격했다. 세르비아의 무자비한 보복이 이어졌다. 반군 소탕을 빌미로 반군 거점 주민들까지 대량으로 학살했다. 이에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시위와 게릴라전으로 맞섰다. 세르비아는 그해 5월 대규모 소탕전을 전개했다. 무시무시한 인종청소였다. 코소보를 탈출하려는 수십만 명의 알바니아계 난민이 줄을 이었다. 국제사회가 개입했다. 사태 초기 국제연합(UN)이 구 유고연방에 무기금수조치를 내린 데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6월 코소보 개입을 선언했다. 인종청소 중단 요구를 세르비아가 무시하자 10월 무력사용을 승인했고, 이듬해 3월 대대적 공습을 전개했다.

내전이 끝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상흔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정치·사회·경제 전체가 불안정하다. 잔뜩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안긴 것은 스포츠였다. 출발은 올 8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었다.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회원 자격을 얻은 코소보는 8명의 선수만 출전시켰음에도 금메달을 땀다. 마일린다 켈멘디가 유도 여자 52kg급에서 사상대 꼭대기에 섰다. 4년 전 알바니아국기를 가슴에 달고 런던올림픽에 출전했던 켈멘디는 “부모형제와 생이별했고, 어린이들은 책도, 음식도 부족하다. 그러나 가난하고 작은 나라도 간절히 노력하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며 감격해했다.

●**축구에서도 영광을 얻다!**

UEFA·FIFA 가입을 성사시킨 파딜 보크리 코소보축구협회장은 “우리는 정말 끔찍한 시대를 경험했다. 이제 코소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사실 코소보는 독립 직후인 2008년 5월 FIFA 가입을 희망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제사회가 독립국으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2012년 FIFA는 처음 “코소보를 회원국에 가입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최종 가입까지는 그로부터 4년이 더 필요했다.

러시아, 스페인, 세르비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지금 이 순간도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한역 은평를 선언한 세르비아의 명수 비수 네마냐 비디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시절, 조국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을 때마다 스승인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찾아가 ‘군 입대’와 ‘참전’ 의사를 전달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코소보에 대한 감정 역시 좋을 리 없다.

그러나 코소보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코소보와 발칸반도의 특수성에

2018러시아월드컵 유럽 최종예선 1차전 결과

조	경기 결과(앞쪽이 홈팀)
C	노르웨이 0-3 독일
	산마리노 0-1 아제르바이잔
	체코 0-0 북아일랜드
D	웨일스 4-0 몰도바
	조지아 1-2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2-2 아일랜드
E	덴마크 1-0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2-2 폴란드
	루마니아 1-1 몬테네그로
F	몰타 1-5 스코틀랜드
	슬로바키아 0-1 잉글랜드
	리투아니아 2-2 슬로베니아
G	스페인 8-0 리히텐슈타인
	알바니아 1-1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1-3 이탈리아
I	핀란드 1-1 코소보
	크로아티아 1-1 터키
	우크라이나 1-1 아이슬란드

※6일(한국시간) 현재, A·B·H조는 7일 경기 개회

의거해 과거 타국 대표팀으로 A매치에 출전했다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UEFA의 허가를 받아 코소보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남아공월드컵에 스위스국가대표로 나선 알베르트 분야쿠(세인트갈렌)가 대표적이다. 알바니아계 스위스인인 분야쿠는 보장된 삶이 아닌, 새 인생과 도전을 택했다. 핀란드 원정경기에서 골 맛을 본 베리사는 노르웨이 각급 청소년대표를 거쳐 A매치 18경기를 뚝 톱급 공격수다. 한국국가대표 황희찬과 잘츠부르크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끈다. 골키퍼 사미르 위카니(AC피사)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알바니아대표로 A매치 20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슈틸리케호 최대고비는 ‘원정팀의 무덤’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서 2무4패
역대 전적까지 9승7무12패로 열세

축구국가대표팀은 9월 2경기(1일 중국·6일 시리아)를 시작으로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 돌입했다. 연말까지 최종예선 3경기를 더 남겨놓고 있다. 핵심은 ‘중동정벌’이다. 6일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에서 맞붙은 시리아를 필두로 중동국가들과 3연전을 치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음달 6일에는 수원월드컵 경기장으로 카타르를 불러들여 안방에서 3차전을 펼친 뒤 11일에는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숙적 이란과 4차전 원정경기를 벌인다. 최종예선에선 월드컵 본선행 확정 전까지 매 경기가 중요하다. 10월 중동팀을 상대로 한 2연전 결과에 따라 남은 일정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매 경기 승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지 판가를 난다. 한국과 같은 A조에는 시리아, 카타르, 이란 등 중동 3개국이 속해있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카타르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상대다. 한국은 카타르와 역대 7차례 만나 4승2무1패를 기록 중이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은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 3-5차전 일정

날짜	상대	경기장소	역대 전적
10. 6	카타르	수원(홈)	4승2무1패
10. 11	이란	테헤란(원정)	9승7무12패
11. 15	우즈베키스탄	미정(홈)	9승3무1패

2013년 3월 26일 벌어진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다. 한국이 이근호(제주), 손흥민(토트넘)의 연속 골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문제는 이란이다. 한국은 이란과의 역대 전적에서 9승7무12패로 열세다. 여기에 아자디 스타디움 원정경기에선 단 한 차례도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원정팀의 무덤’ 아자디 스타디움에선 2무4패에 그쳤다.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2012년 10월 16일)과 2014년 11월 18일 친선경기에서도 잇달아 0-1로 패했다.

한편 한국의 올해 마지막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는 11월 1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홈경기(장소 미정)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역대 전적에선 9승3무1패로 한국이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3월 23일 중국과의 원정 6차전을 시작으로 최종예선을 재개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3위부터 9위까지 승점 6점차 ‘스플릿 전쟁’

5위 상주상무 전역선수 16명 타격
승점 31점 수원삼성초 그룹A 도전



A매치 일정으로 잠시 숨을 고른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이 재개된다. ‘현대오

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29라운드 10~11일 전국 6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 일정 때문에 FCS을골을 올린데는 29경기를 소화했지만, 나머지 10개 팀은 28경기씩을 치렀다. 정규 라운드 33라운드까지 이제 팀별로 4~5경기씩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규 라운드를 마치면 상위 1~6위는 그룹A, 하위 7~12위는 그룹B로 나뉜다. 그룹A에선 우승팀과 내년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다투지만, 그룹B에선 챔피언스리그(2부리그)로 내려갈 팀을 가린다. 강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룹A 진입은 모든 팀의 ‘1차 목표’다.

28라운드까지 전북현대가 승점 62로 1위를 질주하고, 서울이 승점 50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두 팀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양강 체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 밑에 있는 팀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다.

3위 울산(승점 41)부터 9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35)까지 격차는 고작 승점 6점에 불과하다. 승점 6점을 사이에 두고 무려 7개 팀이 좁좁히 붙어있다.

AFC “시리아 홈경기 개최 노력”

아시아축구연맹(AFC) 관계자는 5일 한국과 시리아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 말레이시아 세렘반의 툰쿠 압둘 라만 스타디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시리아가 홈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는 2011년 발발한 내전으로 인해 자국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6일 한국에도 규정대로라면 시리아 내에서 개최돼야 했지만 제3국인 말레이시아로 옮겨졌다. 11월 이란과의 홈경기 장소 또한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AFC 관계자는 “이란전 장소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시리아가 경기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장소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번처럼 AFC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U-16 축구대표팀, 챔피언십 본선 참가

서효원 감독이 이끄는 16세 이하(U-16) 축구대표팀이 15일부터 인도 고아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 본선에 참가한다. 한국, 일본, 호주, 북한 등 16개국이 출전

하는 이번 대회에는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출전권이 걸려 있다. 이번 대회 4위 안에 들어야 U-17 월드컵 티켓을 딸 수 있다. 한국은 16일 이라크, 19일 오만, 22일 말레이시아와 잇달아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메시, 바르셀로나 조기복귀 부상확인
아르헨티나대표팀에 합류했던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가 소속팀에 조기 복귀해 햄스트링 부상을 확인했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는 6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의 왼쪽 다리에 햄스트링 부상이 확인됐다”며 “당분간 훈련 강도를 줄이고, 차도에 따라 향후 경기 출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시는 2일 우루과이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남미 최종예선 7차전에 출전해 결승골을 터트리며 아르헨티나의 1-0 승리를 이끌었으나, 경기 후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아르헨티나는 7일 베네수엘라와 남미 예선 8차전을 치르면서도 선수보호 차원에서 메시를 소속팀으로 돌려보냈다.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손흥민, 이젠 생존 전쟁

토트넘, 공격수 잇따라 영입…주전경쟁 치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4·토트넘)이 본격적인 생존경쟁에 돌입한다.

축구국가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손흥민은 6일 열린 시리아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2차전을 거르고 일찌감치 토트넘으로 복귀했다.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그는 토트넘에 남아 주전 멤버로 도약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았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

다. 토트넘이 이번 여름이적시장에서 빅토르 완야마, 빈센트 얀센 등의 공격수를 잇달아 영입하면서 손흥민으로선 경쟁자들이 더 늘었다.

손흥민의 행보에 해외 매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미국 ESPN을 비롯한 다수의 외신은 6일(한국시간) “손흥민이 토트넘 내 입지 경쟁을 위해 한국대표팀 경기를 건너뛰고 복귀했다”며 “토트넘은 차출 의무가 없는 올림픽에 손흥민의 출전을 허락했고, 한국도 손흥민이

시리아전을 치르지 않고 돌아가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은 올림픽에서 탈락하며 군면제 기회를 놓쳤지만, 아직 2018아시안게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팀 내 입지는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달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프리시즌 일부와 개막 경기를 건너뛰고 복귀했다”며 “토트넘은 차출 의무가 없는 올림픽에 손흥민의 출전을 허락했고, 한국도 손흥민이

지만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길 만한 기회도 없었다. 그리고는 다시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다행히 손흥민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잇달아 치르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왔다. 1일 중국과의 최종예선 1차전에선 직접 골을 뽑진 못했지만, 대표팀의 3골 중 2골에 관여하는 등 공격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토트넘에서의 목표의식도 분명하다. 손흥민은 중국전을 마친 뒤 “토트넘은 꼭 뛰고 싶었던 팀이다. 최대한 많은 경기에 뛸 수 있도록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다형 기자 seody3062@donga.com